

“외국학생에 우리문화 이해시켜야죠”

이화여대 이배용 총장, 하버드생들에 한국역사 직접 설명

“여러분이 앉아 있는 건천궁이 고종 황제의 황후였던 명성황후가 일본에 의해 무참히 시해된 곳입니다.”

통역자를 통해 영어로 옮겨졌다. 그리고 하버드생 사이에서 “아” 하는 탄성이 터져 나왔다. 설명이 이어졌다.

“이런 참혹한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다른 문화를 존중하고 평가가 깃들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여러분이 노력해야 합니다.”

목소리의 주인공은 이화여대 이배용 총장이었다. 7일 경복궁에서 ‘총장과 하버드대 학생이 함께하는 역사문화체험’이 열린 것이다.

이 총장은 미국에서 날아온 하버드생들에게 한국 역사를 알리느라 무더위 속에 구슬땀을 흘렸다. 학생들도 땀을 닦으며 이 총장 설명에 귀를 쫓긋 세운 채 메모했다.

이 총장의 설명은 왕의 집무실인 근정전 앞 영재교에서 시작됐다.

“왕만이 다닐 수 있는 가운데 길과 문관(오른편), 무관(왼편)이 다니는 길이 달랐어요. 여러분 모두 오늘은 왕이 다니던 길로 지나갈 수 있으니 따라오세요.”

이 총장의 재치 있는 설명에 학생들이 신기한듯 다리를 건넜다.

근정전에 이르자 이 총장은 대뜸 근정전 난간으로 학생들을 불러 모았다.

“해태상 보이죠. 큰 해태 2마리가 있고, 새끼 해태 한 마리를 볼 수 있을 거예요. 바로 왕실의 다산, 지속성을 기원



◇7일 서울 경복궁에서 이배용 이화여대 총장(맨 오른쪽)이 우리나라를 찾은 미국 하버드대 학생들에게 우리 역사와 문화 등을 설명하고 있다. 송원영 기자

하기 위해 만들어진 거죠. 여러분도 곁 혼식을 올린 후 사진을 꼭 여기서 찍으세요.”

다시 한 번 웃음이 터져나왔다.

다른 건물과 달리 지붕에 용마루가 없는 왕이 침전인 강령전, 사신이 왔을 때 연회를 베풀던 경회루 등을 거쳐 후원인 향원정, 명성황후가 시해된 건천궁까지 2시간 넘게 이 총장의 역사 설명이 이어졌다.

하버드생들은 여름방학을 이용해 이화여대 캠퍼스에서 한국문화 강의를 듣게 된다. ‘이화·하버드 서머스쿨’ 행

사 일환이다.

이날 프로그램에 참가한 말리 종(19·여·심리학과)은 “전에 창덕궁에 갔지만 단순히 외형을 보고 아름다다고만 생각했는데, 설명을 직접 들으니 더 인상 깊다”고 말했다.

이 총장은 “외국 학생이 한국 문화를 제대로 이해하게 만들어야 국제화를 이룰 수 있다”며 “특히 경복궁을 통해 당시 시대정신과 삶을 보여주기 위해 직접 설명에 나섰다”고 말했다.

이귀전 기자

frei5922@segye.com